

# “서민 삶 담긴 ‘남광주역’ 전주서 매일 새벽3시 찾아 1년간 촬영했죠”

광주 출신 다큐 사진작가 김지연 초대전  
‘남광주-마지막 풍경’ 8월 18일까지 시립미술관  
‘플랫폼·대합실·도깨비시장·마지막 날’ 4개 섹션 85점 전시



매일 새벽 3시 카메라를 쥘때 그녀는 전주 집을 나섰다. 2차선 국도를 1시간 반 달려 도착한 곳은 광주 남광주역. 기쁜 숨을 몰아쉬며 통일호 기차가 들어선 집 보따리를 이고진 ‘아집’과 ‘할매’들이 모여들고 순식간에 ‘도깨비 시장’이 열렸다. 그녀는 ‘눈빛 하나 땅 한방울 하나 허투른 데가 없는 늙은 장꾼들의 정갈한 노동의 힘’을 보았고, 그 모습과 난장 풍경, 남광주역사의 모습을 영글에 담았다. 꼬박 1년을 쉬지 않고 이어온 작업이었다. 1999년 여름부터 2000년 여름까지의 일이다.

광주 출신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지연(70) 초대전 ‘남광주-마지막 풍경’ 전이 오는 8월 1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사진전시관에서 열린다. 전시에서 김 작가가 남광주역이 없어진다는 기사를 접하고 찍기 시작한 사진 85점을 만날 수 있다. 1930년 문을 연 남광주역사는 70년간 운영되던 2000년 8월 10일 문을 닫았고 김 작가는 그 ‘마지막’을 영글에 담았다.

전시는 ‘플랫폼’, ‘대합실’, ‘도깨비 시장’, ‘마지막 날’ 등 4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전시장에 걸린 사진 속엔 삶의 모습이 오롯이 담겼고 기적 소리가 끊긴 대합실과 역사의 풍경엔 쓸쓸함이 깃들여 있었다. 낡은 열차 시간표에선 아련함이 묻어나고 짐 보통이를 발 아래 두고, 기차 옆에서 담배 한대 피우는 할머니의 모습엔 온갖 풍파를 견뎌낸 ‘포스’가 느껴진다.

“보따리를 내려 놓고 담배를 피우는 할머니를 봤어요. 사진을 찍는데 “호랭이가 물어 가 부러!” 하시더라구요. 기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사진을 찍으러 다니며 많은 분들을 만났죠. 이모래이 큰

처라 역에서 놀았던 기억은 있지만 정작 역을 이용한 적은 없는데 ‘사라진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왠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남광주역이 가진 정서 같은 게 늘 제 맘 속에 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리 오랫동안 작업을 했는지 신기하기도 합니다.”

35mm 필름 카메라에 24mm 단렌즈를 끼워 촬영한 터라 사람들한테 가까이 접근해야 하는 게 초반엔 힘들었다. 하지만 매일 삼각대를 놓아두고 플랫폼 등에 쪼그리고 앉아 사진을 찍으니 ‘이는 얼굴’도 생기고, 안부를 묻는 이들도 있었다.

“할머니들이 파는 건 천원짜리 몇장이면 살 수 있는 것들이었죠. 옥수수 한웅큼, 가지 한웅큼, 너무 작은 양이예요. 사진을 찍고 이것 저것 사 보따리 보따리 챙겨가는 게 일상이었죠.”

역사 사무실에는 8월 10일 ‘딱 하루’ 들어갈 수 있었다. 낡은 선공기, 8월의 열차 시간표, 닳아버린 구두솔 등 사무실 풍경을 클로즈업해 담았다. 정식없는 곳에서 사진을 찍는 김 작가를 늘 못마땅해하던 역장도 이날만은 “마지막으로 사진 한장 찍자”는 말에 역무원 두명과 함께 포즈를 취해주었다. 또 ‘4006’호 마지막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플랫폼을 바라보는 모습과 열차, 그곳을 스치듯 지나는 사람의 모습을 영글에 담았고, 쓸쓸히 남겨진 역사의 풍경도 찍었다.

“인화 작업을 하며 70년간 경제적, 정서적으로 많은 이들과 친숙했던 남광주역을 우리가 쉽게 보내버렸구나 하는 회한이 느껴졌어요. 아쉽게도 필름을 분실해 이번 전시작품이 유일한 원본이예요. 사진을 아주 크게

뵙아 전시했는데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전시구성을 했어요. 인간의 희로애락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할머니들의 활개치는 모습을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김 작가는 20년만에 남광주역을 찾아 작업한 영상물(16분)도 전시중이다. 삶의 엄청난 에너지와 생동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곳에는 다시 장이 열리고 있었고 “역적 백이 영란이 엄마는 저 세상으로 가부렀다”고 말하는 도깨비장을 기억하는 누군가의 욕성도 들을 수 있었다.

서울대 연극과를 졸업한 그녀는 50이 되던 해 사진을 시작했다. ‘남광주 작업’이 첫 출발이었다. 정식으로 사진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 여자라는 것, 지방 출신이라는 게 모두 핸디캡이었다. 김 작가는 ‘정미소 작가’로 불린다. 전국의 낡은 정미소를 촬영해 ‘정미소’(2002)전을 열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전북 진안의 낡은 정미소를 구입해 개조한 공동체박물관 ‘계남 정미소’ 관장도 맡고 있다. 또 전주 서학동 사진관도 운영중이며 지금까지 25차례가 넘는 사진전을 기획했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그의 사진집을 함께 볼 수 있어 흥미롭다. 200곳의 이발소 사진을 찍은 ‘나는 이발소에 간다’를 비롯해 ‘근대화 상화’, ‘삼천원의 식사’, ‘자영업자’ 등 화제가 됐던 작품집이다. 또 글씨력도 만만치 않은 그녀는 최근 따뜻한 사진과 글이 실린 ‘전라선(열화당 간)’을 출간했다.

전시를 보다보면 자신만의 남광주역 추억을 꺼내들게 될지도 모르겠다. 개막식은 12일 오후 3시 열리며 26일에는 작가와의 대화도 진행된다. 문의 062-613-712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34명 디자이너... 34색 팔레트

호남대 패션디자인학과 졸업작품 패션쇼, 14일 문화전당

호남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학과장 김지연) 제38회 졸업작품 패션쇼가 오는 14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1에서 열린다. 1979년 의상디자인학과로 출발한 패션디자인학과는 개교 40주년을 맞아 명칭을 변경하고 바뀐 학과명으로 첫 졸업작품 패션쇼를 연다.

패션쇼 주제 ‘A palette of 34 people’은 내년 졸업하는 34명 학생들의 새롭고 다양한 개성을 34가지 색으로 표현하고 그 색들이 모인 팔레트라는 뜻을 담았다. 패션쇼에 출품된 의상은 졸업 후 K-Fashion 분야에서 활동할 예비 디자이너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들로 모두 6개의 스테이지를 통해 선보인다. 여성의 상징에서 벗어나 과감한 작품을 선보이는 ‘over the woman’, 유쾌한 동화적 요소가 담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정형화된 복식의 틀을 버리고 자유롭고 독창적인 디테일로 젊고 감각적인 패션을 보여주는 ‘Alternative modernity’, 물질만능사회의 상징인 달러의 이미지와 합합 분위기를 살린 ‘자본주의’ 등이다. 또 바다 속 살아 숨쉬는 생물의 아름다움과 모래빛을 조형적인 미로 표현한 ‘美 Organism’, 실크와 자수 원단을 활용해 로맨틱한 정원에서의 하루를 묘사한 ‘Botanic garden’ 스테이지를 통해 다채로운 의상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강동아·김원지·박소정·박은서·정은지 등이 참여했다.

현대사회의 패션은 단순히 의상을 제작하는 걸 넘어서 우리 시대의 사회적·철학적·경제적·인문학 요소까지를 아우르는 중

합예술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션은 제조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3D 프린팅, 가상 현실 기술 등 첨단기술과 접목되면서 창의산업 선도하고 스토리텔링까지 더해지며 진화하고 있다.

호남대 패션디자인학과는 기술융합형 패션상품 디자인, 비즈니스 교육, 디지털 패션 관련 교과목 확대, 단계별 취업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중이며 간문자·이숙희·최경희·김지연·안광숙·조은주·장소영·박신정·윤점순 교수가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문의 062-940-384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설아 작 'Black Pink'

# ‘인문지행’ 고갱-고흐 예술적 관계

16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매일 1회 시민들과 함께 세계 미술관들의 명화를 감상하는 (사)인문지행 ‘문화예술기획’ 6월 행사가 오는 16일 오후 2시~4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영국의 대영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품을 만나는 이번 강좌에서는 후기 인상주의를 이끈 고갱과 고흐의 작품을 중심으로 두 화가가 특별한 관계를 통해 주고받은 예술적 상호작용을 만나 본다.

감상 작품은 세잔의 ‘생트빅트와르 산의 전경’, ‘정물화’, 고흐의 ‘아름의 풍경’, ‘밤의 하얀 집’, 고갱의 ‘그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일을 들고 있는 여인’, 루소의 ‘호랑이와 물소 싸움’ 등이며 회화에 나타



고흐 작 '밤의 하얀 집'

난 새로운 변화인 ‘나비파’의 대표 화가 모리스 드니의 ‘방문’과 ‘봄 풍경과 여인들’도 만날 수 있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의 대표 심옥숙 박사가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 문의 010-5205-5668, 062-229-068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000년 8월 10일 마지막날 남광주역 풍경과 도깨비시장에 물건을 팔러나온 할머니의 모습.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대상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리스케이거스 CES 혁신기술포럼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인노베이션 어워드 [혁신상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신양파크호텔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www.shinyangparkhotel.com